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4호
2017. 9. 13
가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2018년은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순국75주년을 맞은 해 2017년도 하반기 임원회의 개최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에서는 지난 9월 5일 정오,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한정식 식당 '나무가 있는 집'에서 2017년도 하반기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봉오동전투 전승97주년 행사 등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에 개최될 추모식과 학술회의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2018년에 맞이 할 홍범도장군의 탄생150주년 기념행사의 시행방향을 검토하였다.

10월 25일에 개최될 추모식은 경복궁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개최하며, 홍범도함 승조원을 초청한다.

추모식에 이어 개최될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홍범도장군 관련 저서의 역사적 배경과 평가'를 주제로 하여, 제1주제는 '홍범도 일지의 역사적 배경과 사료적 가치'로 전북대 윤상원 교수가 발표하고,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이 토론한다. 제2주제는 '홍범도 연극의 배경과 미학적 가치'로 조규일 숭실대 교수가 발표하고, 최영근 카자흐스탄 공훈극작가가 토론하며, 제3주제는 '소설 홍범도의 역사적 가치와 문학적 평가'로 임형모 군산대 강사가 발표하고, 신효승 전쟁과 평화연구소 연구원이 토론하기로 하였다. 학술회의 좌장은 반병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한편 2018년에 맞이할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 기념행사와 순국75주년 추모행사의 시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

념식 일자는 음력 8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12일에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추모행사는 10월 25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하며 이에 앞서 23일에는 크즐오르다로 이동하여, 홍범도장군 묘지를 참배하기로 하였다.

홍범도 연극 공연은 추모식 당일, 1942년 연극을 초연했던 고려극장에서 개최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알마티 총영사관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고려극장 측과의 협조는 최영근 선생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우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측과 협의 중인데, 우표의 디자인은 12월 중에 확정되고, 2018년 10월 12일자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이사로 홍성덕 부이사장이 추천한 김경호 대구시 자문대사와 송시한 인도네시아 산업발전 국영자문 감시기구 한국대표를 추천 의결하고, 김경호 신임이사에게 추천장을 교부하였다. 한편 지난 3월 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박형상 변호사(전 서울 중구청장)에게도 선임장을 교부하였다.

회의비 식대는 임원친목 모임의 관행에 따라 이미지 이사가 부담하였다.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모든 임원들이 황원섭 이사 안내로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 중인 우당 이회영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 '민국의 길 자유의 길'을 관람하였다.

〈이종찬 이사장 기고문〉

의병정신으로 군을 개혁하여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켜야



얼마 전 현역 4성 장군이 일명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군검찰에 고발당했다. 4성 장군이면 역사에 남을만한 군의 최고위급 지휘관이다. 국방정책이나 전략문제로 고민해야 할 대장이 일개 병사에게 갑질을 하다가 사회적 비난을 샀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중국의 전국시대 오기(吳起) 장군은 부상을 당한 부하 병사의 환부에 직접 입을 대고 피고름을 빨아내 치료했다는 일화가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군이라면 최고의 도덕적 권위와 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지휘관이 존재해야 군의 지휘체계가 바로 잡히고 강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창군 때부터 일본식 군대 악습이 유산처럼 남아 있다. 상하관계를 폭력으로 유지하는 가학성 콤플렉스 집단처럼 된 배경이다. 일본의 작가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가 쓴 소설 ‘인간의 조건’은 군에 징집된 병사가 비인간적인 상관 밑에서 과멸의 길을 걷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다. 꼭 우리 군의 원형같이 느껴졌다. 6·25 동란 당시 무모한 지휘관이 군기를 잡는다고 ‘즉결처분’을 남발해 희생된 장병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막상 전쟁기록이나 군 역사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 군의 병영문화도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공관병 갑질 사건을 보면 악습 자체가 외면상으로 가려져 있었을 뿐 본질적으로 치유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군의 창군 역사를 보면 미 군정시대의 조선경비대를 모체로 시작된 것처럼 기록됐다. 그러나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광복군을 재조직할 때의 기록을 보면 ‘정미년(1907) 8월 1일 대한제국군이 해산한 날이 곧 광복군이 창립된 날’이라고 했다.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의하여 강제 해산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해산된 군 장교들이 의병과 합세해 대일항전에 나섰다. 장비가 열악한 의병은 일본군에게 쫓겨 연해주로, 북간도로 밀려났다가 독립군으로 재편성된

것이다. 광복군 역사의 정통성은 독립군인 셈이다. 우리 군의 뿌리를 항일 의병에 두지 않고 마치 미군정 때 일본군 출신들이 창군한 것을 전통처럼 떠받드는 역사관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우리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 인민군을 보자. 북한은 당초 소련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 8일 창군했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북한은 1978년 창군일을 다시 정했다. 창군일을 김일성의 무장투쟁을 근거로 1932년 4월 25일로 정정했다. 역사의 원초적 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군의 역사를 확고히 정립하는 것은 강군으로 가는 길이다. 항일 의병은 병사들 하나하나가 신념으로 뭉쳐 봉기한 소중한 존재였다. 지휘관과 병사는 혼연일체로 일본에 대항했다.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군정과 군령이 각각 분리돼 낭비적인 군을 개혁하려는 의욕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군 개혁은 역대정권마다 처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항상 끝을 맺지 못했다. 군이란 특수조직 사회이다 보니 자기 생존력이 강하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군 개혁의 칼을 대자 군 최고직에 있는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이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젊은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는 나다”라고 외쳤겠는가.

우리 군도 아마 개혁에 대해 총론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호지부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전임 국방부 장관도 장군 수를 줄인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유야무야 임기를 끝냈다.

자주국방은 시대적 과제다. 지휘관부터 일선의 병사까지 모든 장병이 유능하고 충실할 때 강군이 되고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된다. 강한 군은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나라가 위난에 빠졌을 때 의병이 봉기를 한 것처럼 단단한 각오로 강군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아시아경제 2017. 9. 4 기고문)

<기념사업회 동정>

기념사업회 임원, 우당6형제 독립운동 전시회 관람



기념사업회 임원들은 9월 5일 임원회의가 끝난 후, 황원섭 이사가 안내하여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고 있는 우당 이회영선생 6형제의 독립운동 “민국의 길, 자유의 길” 전시회를 관람했다. 이 전시회는 우당선생 탄생150주년을 맞아 우당기념사업회와 서울역사박물관이 공동주최했다. 우당6형제는 경술국치로 국권을 빼앗기자 전 가족이 만주

로 망명하여 다른 동지들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독립투쟁의 뿌리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6형제는 우리나라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사표가 되었다는 내용이 전시회의 첫 번째 얘기다.

이회영 선생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ана키스트 활동을 했고, 8·15광복 후 유일하게 생존하여 귀국한 이시영은 대한민국 초대부통령이 되어 참된 민주정치를 위하여 헌신했으나 이승만 대통령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그분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시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고민하다’, ‘무장 독립운동의 깃발,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자유의 길’, ‘임시정부의 지킴이, 이시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코너는 이종찬 이사장의 해방 이후 귀국 얘기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이종찬 이사장, 신규 임원에게 선임장 수여

지난 3월 8일 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박형상 변호사(전 서울 중구 구청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고, 9월 5일 임원회의에서 새로 이사로 추천된 김경호 대구시 자문대사에게 추

천장을 전달했다. 임원은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다.



<박형상 감사>



<김경호 이사>

7월 임원 친목 모임 성황리에 개최



지난 7월 18일 오후 종로1가에 있는 ‘더 뷔페’ 식당에서 7월 임원 친목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홍재구 이사의 초청으로 홍성덕 부이사장, 홍헌일 감사 등 14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기념사업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의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여성 등 직능조직을 신규로 조직하고 임원의 수를 증원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제안이 있었다. 문준진 총장이 중심이 되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다음 모임에 상정하기로 했다.

〈홍범도함 소식〉

홍범도함, 완벽한 함인수를 위한 노력

홍범도함은 지난 2017년 4월 10일, 부대창설 1주년('2017. 4. 1)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함장표창 수여식, 명예승조원 임명식, 홍범도함장배

체육대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승조원 단합활동 및 격려만찬을 통해 홍범도함 창설 1주년을 자축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홍범도함 부대창설 1주년 기념행사〉

지난 6월 7일에는 함 총원이 “제97주년 봉오동전투 전승기념 국민대회”에 참가하여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황원섭 이사의 특별 안보강연을 통해 국군의 연원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저

녁시간에는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한 만찬에 참가하여 기념사업회와 홍범도함 승조원이 상호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97주년 봉오동전투 전승기념 국민대회〉



〈기념사업회 주관 특별 안보강연〉

또한, 홍범도함은 강정호 함장을 중심으로 승조원들의 사기증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월 1일과 9월 6일에는 홍범도함-현대중공업 생산3부 사이에 친선 체육활동을 통해 조선소 현장 인원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함인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울산에서의 수리기간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8월 11일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박물관 견학, 대왕암 공원 트레킹 등 승조원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홍범도함-현대중공업 생산3부 친선 체육활동〉



〈울산 암각화박물관 견학〉

〈홍범도 장군 관련 보도 소개〉

연합뉴스, [이희용의 글로벌시대] ‘하늘을 나는 독립군 장군, 홍범도’



〈홍범도장군 묘역 홍상과 기념비〉



〈크즐오르다 ‘홍범도 거리’ 전경〉

연합뉴스 이희용 기자가 카자흐스탄 현지를 방문하고 지난 8월 1일자로 「이희용의 글로벌시대」에 홍범도 장군을 소개하는 기사를 사진과 더불어 게재하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1937년 소련 연해주에 모여 살던 고려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몸담았거나 이들의 친인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 정부는 그해 9월 9일부터 이들을 시베리아횡단열차로 실어 나르기 직전 고려인 지도자급 인사 2천500여 명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했다.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이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민초였지만 우뚝한 인물이 하나 있었다. 항일 무장투쟁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전공을 세운 홍범도였다. 소련 최고지도자 레닌의 칭송을 받은 그도 스탈린 치하에 선 유배 아닌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다.”

또한 홍범도는 여러모로 김좌진과 대비된다고 전제하고 부유한 명문가 자제였던 김좌진과 달리 홍범도는 머슴출신이었으며, 홍범도는 1921년 ‘자유시 참변’에서 볼셰비키의 지원을 업고 공격에 나선 이르쿠츠크와 고려공산당편을 들고 소련군 제5군단 소속 합동민족여단의 대대장으로 활동한 반면 김좌진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하다 조선공산당원에게 살해됐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기 최대 대첩으로 꼽히는 청산리 전투가 두 사람의 연합작전으로 이뤄진 것인데도 한국에서는 김좌진만 부각하고 북한은 아예 홍범도의 단독 작전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 기자는 ‘홍범도 일지’를 통하여 장군의 출신 배경과 의열투쟁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설명하고 강제이

주 이후 크즐오르다 고려극장 수위와 정미소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리고 장군의 “서거 70주년인 2013년에 알마티 국립 고려극장에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와 ‘카자흐 고려인 독립유공자후손회(회장 계 니콜라이)’가 참가한 가운데 71년 만에 홍범도 연극을 공연한 내용도 보도하였다.

경남도민신문, 홍범도장군 탄신 150주년 관련 보도

경남도민신문에서는 8월 30일자로 추호석 진주문화원 향토사연구실장 투고로 홍범도장군 탄신150주년이라는 제하에 장군의 독립운동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1868년 8월 27일 태어나 내년이면 탄신 150주년이 된다고 소개하고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1920년에 안도현 명월진에서 의병과 포수를 모아 대한 독립군단을 창설하여 연합부대를 편성하여 북로제1군 사령관으로 추대되어 6월 7일 봉오동전투에서 4시간 동안 극심한 전투 끝에 일본군 전사 157명, 중상 200여 명의 전과를 세웠다.

또한 10월 21일에는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과 합동으로 청산리전투에서 독립군 1,940명, 일본군 7,000여 명과 싸워 일본군 전사자가 1,254이었다고 전과를 소개하였다.

〈임원 기고〉

홍범도장군의 묘지는 정부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황 원 섭(기념사업회 이사)



“날으는 홍범도장군” 회보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10일자 가을 호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장군의 묘역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홍범도장군 묘지는 1943년 10월 25일 순국 당시 독·소전쟁(獨蘇戰爭) 중이라 거소 근처에 임시 묘지를 조성했다가 1945년 종전 이후 중앙공원 묘지로 이장했다. 1951년 8주기를 맞아 레닌기치 신문이 중심이 되어 고려인 유지와 전우들이 모금하여 반신 흉상과 철책을 세웠다. 1996년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인이 제공인 기금으로 흉상주변에 강제이주, 광복50년, 강제이주 60년 등 3개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 후 홍범도 펀드가 설립되어 김 네프만 회장이 몇 년 동안 관리했으나 정부 지원이 없고, 내부 분란이 일어나 펀드는 2012년 사실상 해체되었다.

“날으는 홍범도장군” 회보에서는 2015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의 현지 르포 기사를 인용하여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장군 묘지엔 수풀만 무성하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2013년도 70주년 추모식을 현지에서 개최하고 묘지관리 문제점을 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2014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홍범도장군 묘지관리 개선 문제를 질의하고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보훈처에서는 크즐오르다 홍범도 펀드 김네프만 회장과 계봉우 선생 아드님이 관리한다고 허위로 답변했다.

얼마 전 광복회 임원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에 오물이 산재되어 있다고 우리 기념사업회에 알려졌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흔적이 해외에 있어도 이것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또한 현지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앞장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이준 열사의 유해는 네덜란드 헤이그 외곽 한 묘지에 묻혀 있다가 1963년 박정희 대통령 때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운동장에서 국민장 의식을 마치고 수유리 순국선열 묘지에 안장했다.

그러나 헤이그 교외 공동묘지 안에 있는 이준(李鶴)열사 묘는 1977년 외무부에서 이준열사 묘적(墓蹟)정화사업으로 당시 3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흉상과 묘비를 제작하여 정화하였다. 묘역도 협소했으나 네덜란드 정부와 공동묘지 측과 협보하여 확장하여 요즘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가서 참배하고 추모하고 있다.

이준열사의 묘지와 유적관리처럼 홍범도장군의 묘지도 정부에서 주도하여 관리해야 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2018년 홍범도장군 탄생150주년과 순국75주기 추모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순국75주년 추모식 이전에 확고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무장독립운동 장군열전 1

광복군 총영장(總營長) 오동진(吳東振) 장군



오동진 장군은 1889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 의주의 대신학교와 평양의 대성학교 사범과를 졸업한 뒤 상업에 종사하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의주에서 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의 손길이 미치자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간도에 자리를 잡은 뒤, 안병찬(安秉瓚)과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연합회를 조직하고 교육부원이 되어 만주와 국내 등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20년 광복군총영을 결성하고 총영장이 되어 독립군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항일전투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독립군 잠입조는 4개조로 편성되었는데 평양 잠입조는 평남 경찰부에, 신의주 잠입조는 신의주역 철도호텔에, 선천 잠입조는 선천경찰서와 선천군청에 각기 폭탄을 던져 폭파하였다. 총독부를 폭파계획했던 서울 잠입조는 사전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실패하였다.

오동진은 1922년 재만독립운동단체가 통합 결성된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의 교통부장·재무부장으로 임명되어 국내외에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 군사부장 겸 사령장(司令長)이 되어 소속 독립군을 지휘, 활발한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다.

통의부는 우당 이회영선생이 지도로 이끌어있던 독립운동 조직 8개 단체와 9개 모임을 통합하여 조직된 무장독립운동단체이며, 조선의용군은 산하 군사조직이었다.

1925년 대한통의부·의성단(義成團)·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광정단(光正團) 등 10여 개 단체를 규합하여 정의부(正義府)를 결성하고, 군사부위원장 겸 사령장으로 소속 독립군을 지휘하여 국경지방의 일본경찰관서를 습격, 파괴하였다.

대표적인 습격활동은 평안북도 초산경찰서의 추목주재소(楸木駐在所)·외연주재소(外淵駐在所) 및 벽동경찰서 여해주재소(如海駐在所) 습격사건과 1925년 차련관주재소(車輦館駐在所) 습격사건 등이었다.

1926년에는 양기탁과 천도교 혁신파, 소련 지역의 독립 운동가들이 규합, 조직한 고려혁명당의 군사위원장, 총사령으로서 독립군을 총지휘했다.

일제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1927년까지 오동진은 연인원 1만 명이 넘는 부하를 이끌었고 일제 관공서를 백여 차례 습격하여 살상한 사람이 900여 명에 달한다.

1928년 일본경찰의 밀정인 김종원(金宗源)의 모략에 빠져 체포되었다. 국내로 압송되어 신의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경성형무소와 공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으며, 1934년 20년으로 감형되기도 하였으나 모진 고문 끝에 1944년 55세로 옥사하였다.

계연수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선생에게 자금지원을 받아 1912년에 환단고기 30권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이 책이 구한말 암울한 역사속에서 하나의 태풍으로 부상한 것이다. 30권의 환단고기를 대부분 일제에 의해 압수당해 불태워 졌고 몇 권은 남아 독립운동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계연수 선생은 만주에 건너가 만주에서 독립운동단체인 천마대, 서로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독립단 등에서 무장독립운동의 정신적, 사상적 계몽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으나, 대부분 일제의 눈을 피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므로 구체적 업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동진 장군은 무장항일 운동가로 주로 일본의 경찰소나 주재소, 관청 등을 습격 폭파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홍범도 장군과 함께 환단고기 출판을 돕는 등 민족정신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임 원 동 정…

○이종찬 이사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인 이사장은 8월 21일 오후 연합TV뉴스에 출연하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중인 우당6형제의 전시회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대담했다. 한편 8월 3일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행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강(自強)의 길을 열면서 역사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성덕 부이사장



수필가인 부이사장은 7월 25일(화) 18시 30분, 마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회수기념으로 칼럼집 "네 손자의 나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종찬 이사장 내외분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제2부에서는 부이사장 내외와 자녀, 손자, 사위, 며느리 등 3대 10명이 총출동하는 가족음악회를 개최했다.

○김유진 고문



4·19혁명공로자회 이사인 김 고문은 지난 2월부터 4·19혁명을 프랑스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과 더불어 세계 4대혁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000만 서명을 벌이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서명했다. 서명 작업과 더불어 유네스코와 세계 각국의 대학과 도서관, 학술단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있다.

○박형상 감사(신임)



박 감사는 서울 중구 구청장 출신으로 약수동에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6월 30일자로 발행된 '한양도성소식' 7월호에 '다산로, 다산동, 다산성곽'이라는 글을 투고했다. 한양도성소식지는 한양도성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한양도성 행복플러스 운영위원회에서 발행한다.

○김경호 이사(신임)



김 이사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공사와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를 마친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에서 초청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등 주로 러시아 관련 전문 업무를 담당했다. 7월 1일부터는 대구시 자문대사를 맡아 외국 관련 업무를 자문하고 있다.

○문준진 사무총장



9월 5일부터 개교하는 촛불정치학교(교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장) 제1기생으로 참여하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매주 2회씩, 8회에 걸친 교육에 참가했다.

○이영철 이사



장수이씨종친회 고문은 8월 18일 경남 남해군에서 이희급(李希級) 선생의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을 7월 20일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637호로 지정함에 따라 종친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희급 선생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고향인 남해에서 경상도사로 의병을 모아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싸우다 순절했다.

○홍성종 이사



남양홍씨 남양군과 대중중회 회장은 산하 지역종친회장과 유적지 탐방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5일 강화도를 방문하여 고려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민족의 수난과 역사의 흐름 관련 유적을 답사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홍이표 이사



'애국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소비자모임' 대표는 7월 16일 운영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외평리 "애지모 농촌체험학습장"에서 농촌체험 학습활동을 벌였고, 8월 12일부터 3주 과정으로 애지모 학부모 및 청소년 비전 스쿨을 진행했다. 또한 7월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곡성에서 자연농업연찬회(건강한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연구모임)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을 주관했다.

○곽승지 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6월 30일자로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에서 "중국동북지역과 한민족"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이 책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민족의 발자취를 찾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역사의 연구와 답사 결과를 기록한 책이다. 곽 교수는 하계방학을 맞아 8월 초순 귀국했다가 8월 27일 출국했다.

○김진중 자문위원



서대문문인협회 회장은 지난 9월 1일부터 1박2일 동안 서대문문인협회와 은평문인협회 회원 40명을 인솔하여 '2017 가을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기행은 첫째 날에는 경북 영양의 조지훈문학관과 이문열문학관을 둘러보고 의성의 잊혀진 제국 '조문국 사적지'와 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둘째 날에는 625년의 전통을 지닌 의성 사촌마을과 의성의병기념관을 둘러보고, 1400년 고찰인 고운사를 답사했다.